

‘3안타가 모두 홈런’ 신형 대포 아테를린, 존재감 폭발

“팀 홈런 공동 1위인데”...KIA, 아테를린에 더 기대 거는 이유

최근 10경기 득점권 타율 9위, ‘한방의 힘’ 새로운 중심축 기대 ‘팀 득점력 직결’...오스틴·레이에스·페라자와 동급 활약 주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대체 외국인 타자 아테를린 로드리게스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부상으로 빠진 카스트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공격 변수로 떠올랐다. 아테를린은 지난 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에서 4타수 2안타(2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전날 KBO리그 데뷔전에서도 홈런을 터뜨리며 4타수 1안타(1홈런) 3타점을 올렸다. 2경기 3안타. 모두 홈런이었다. 단순한 기록 이상의 출발이다. 적은 타석에서도 한방의 힘이 드러난다. 아테를린의 순장타율(ISO)은 1.125에

달한다. OPS는 1.944, 득점권 OPS는 2.667이다. 아직 표본은 적지만, 초반 페이스만큼은 강렬하다. KIA는 올 시즌 팀 홈런 36개로 SSG와 함께 리그 공동 1위다. 장타 자체가 부족한 팀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 타자가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부상으로 이탈한 카스트로는 23경기에서 홈런 2개에 그쳤다. OPS는 0.700, wRC+는 79.0이었다. 득점권 OPS도 0.588로 높지 않았다. 게다가 팀 득점권 타율이 최근 10경기 0.254로 리그 9위로 처졌다. 리그 5위 KIA의 상위권 도약을 위해선 클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만큼 아테를린의 가세는 팬들과 구단으로

선반가운 요소다. 다른 구단들의 외국인 타자를 보면 그 중요성은 더 커진다. LG 오스틴은 8홈런으로 팀 홈런 20개 중 40%를 책임지고 있다. 롯데 레이에스는 6홈런, KT 힐리어드는 7홈런을 기록 중이다. 한화 페라자도 OPS 0.987, wRC+ 172로 타선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득점권 상황에선 차이가 더 뚜렷하다. 오스틴의 득점권 OPS는 1.208, 레이에스는 1.364, 페라자는 1.180이다. 외국인 타자의 해결 능력이 팀 득점력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KIA 역시 다르지 않다. 외국인 타자의 방망이가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테를린의 계약 기간은 6주. 앞으로 어느 정도의 활약을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제 겨우 2경기다. 선부른 평가를 내리기엔 이르다. 하지만 짧은 기간 보여준 결과만큼은 선명했다. 팀 홈런 공동 1위 KIA가 아테를린의 등장에 더 기대를 거는 이유다. /주홍철 기자



KIA 대체 외국인 타자 아테를린이 지난 6일 열린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6회 솔로 홈런에 이어 9회 연타석 홈런을 터뜨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경기 중 무슨 일?’...챔스필드 때아닌 날벌레 습격

조명·습도·기온과 주변환경 영향 분석

여름 야구장의 익숙한 풍경인 날벌레가 최근 KIA 홈경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도 경기 중 이를 쫓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중계 화면에 잡혔다. KIA 구단 관계자는 지난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날벌레가 한 번씩 많이 잡힐 때가 있다”며 “작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가끔 일시적으로 방역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계 화면에는 KIA 포수 한준수가 경기 중 홈플레이트 주변 벌레를 향해 퇴치약을 뿌리는 모습이 잡혔다. 타자가 손을 휘저으며 이를 쫓는 장면도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중계진은 경기 전부터 날벌레를 계속 잡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여름철 야간 경기에서 종종 나타난다. 조명과 습도, 기온 등의 영향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뿐 아니라 다른 구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은 자주 나타난다. 구단 관계자는 “잠실구장도 하루살이가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구단은 이를 여름철 야외 경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로 보고 있다. KIA 관계자는 “야구장이 실내 스포츠 시설은 아니다 보니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 경기력과 관련해서는 “경기 중 불편함을 있을 수 있지만, 야외 경기 특성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KIA 포수 한준수가 지난 6일 한화와의 경기 중 홈플레이트 주변 날벌레를 향해 퇴치약을 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날벌레가 유독 홈플레이트와 타석 주변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명과 천변 주변 환경 등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계 화면에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장면은 이제 여름 야구장의 익숙한 풍경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주홍철 기자

‘패배도 습관’...기나긴 연패 탈출 ‘사활’

광주FC, 내일 강원FC와 홈경기 “더 이상 징크스는 없다”

‘엘로우마켓’·‘빛고을 추억 문방구’...가정의 달 팬 이벤트 풍성

2026 프로축구 K리그 최하위로 추락한 광주FC가 기나긴 연패 탈출에 사활을 건다. 광주는 9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2026’ 1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전북현대와의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까지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후반 수비진이 무너지며 0-4 패배를 기록했다. 벌써 8연패다. 지난 3월22일 서울FC 원정(0-5)패배 이후 전북전까지 3득점에 29실점. 공격은 무더졌고 수비는 헐거웠다. 1승 3무 8패(승점 6)를 기록한 광주는 11위 부천(승점 13)과 승점 7점차까지 벌어졌다. 분위기가 반전이 절실하다. 선수단은 배랑 끝 각오로 그라운드에 선다. 공격에서는 장신 공격수 프리드손스의 경기력 회복세가 긍정적인 요소다. 프리드손스는 전북전에서 큰 신장을 활용한 공중볼 장악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에 유효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FC안양과의 10라운드 홈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한 이후 점차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어 이번 강원전 활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는 최근 강원전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맞대결 6연패를 기록 중이며, 올 시즌 첫 맞대결 원정 경기에서도 0-3으로 패했다. 다만 광주는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홈 이점과 활동량을 앞세워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연패에도 끝까지 믿어주고 성원해주는 홈 팬들에게 책임감 있는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광주 선수단이 투지를 불태워 승리를 통해 강원 징크스와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는 가정의 달을 맞아 찾아오는 가족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구단의 역대 유니폼과 트레이닝 웨어, MD를 만나볼 수 있는 ‘엘로우마켓’을 운영해 구단의 역사와 추억을 팬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 세대의 추억과 아이들의 동심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빛고을 추억 문방구’ 이벤트를 운영한다.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추억의 놀



광주FC 프리드손스가 지난달 26일 열린 FC안양과 홈경기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들을 진행해 상품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관중들에게 경기 관람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외에 신경을 통해 선정된 다자녀 가족 팬들이 시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20개 스포츠클럽 스포츠인재 14개 종목 90명 소년체전 광주대표 출전

광주시체육회, 스포츠클럽 인증서 전달

광주시체육회가 7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 스포츠클럽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복싱, 축구, 펜싱, 합기도 등 10개 종목 15개 스포츠클럽 관계자와 김이남(사이클), 남태운(검도), 이현섭(볼링) 전무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 대상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빛고을 스포츠클럽으로, 스포츠클럽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전문체육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는 검도 등 14개 종목 20개 클럽, 총 90명으로 지난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2개 종목, 1개 클럽, 9명이 증가했다. 특히 사설 스포츠클럽은 산악, 에어로빅·힙합 등 10개 종목 16개 클럽에서 80명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1개 종목, 1개 클럽, 14명이 증가하며 지역 전문체육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미래 체육 인재를 키우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광주시체육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체육회도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인 소수 선수는 검도 등 14개 종목 20개 클럽, 총 90명으로 지난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2개 종목, 1개 클럽, 9명이 증가했다. /박희중 기자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학생체전 참가 광주선수단 필승 결단식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시선수단이 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결단식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는 이번 대회에 10개 종목 총 122명(선수 75명, 감독·코치 21명, 임원 및 관계자 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메달 46개(금메달 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8개) 획득을 목표로 선수와 지도자들이 훈련에 매진해왔다. 이날 결단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광주 장애인체육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선수단을 대표해 배드민턴 송형우(광주선광학교)와 수영 김하진(광산중)이 선서를 하며 각오를 다졌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을 맺어 장애학생 선수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학생선수들이 체육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